

대선 1년 앞으로... 대권경쟁 조기점화

박근혜·안철수 양자구도 속 여야 잠룡들 행보 초미 관심

'복지·경제' 양대 화두... 총선 결과 대선판도 좌우 가능성

내년 12월19일을 향해 뛰는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19일부터 36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보수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할지, 아니면 절차부실해 온 진보세력이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을 지 주목된다.

특히 대선 8개월 전에 실시되는 내년 '4·11 총선' 결과가 대선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년은 '선거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에 불붙은 대권 경쟁=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난파 위기에 처한 '한나라 당호(號)'를 구하기 위한 선장으로 나섰다. 야권에서도 통합에 의한 '거함'이 출현하면서 조기에 대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우선 대선 전초전인 내년 총선에서 여야 각 당에 소속된 잠룡들이 힘겨루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당분간은 각종 지지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는 여권의 박근혜 전 대표와 야권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경전이 첨예해지며 당분간 양자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들 외 여야 잠룡들이 경쟁력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고, 총선이 대선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박 전 대표나 안 원장 모두 '대세론'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선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 등은 '구당'(求黨) 차원에서 박 전 대표와 협조관

계를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반전을 노린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안철수 원장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경남지사, 정동영 정세균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행보가 주목된다.

◇양대 화두는 경제와 복지=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가 커져만가는 복지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가 재정위기와 포퓰리즘 비판

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핏세'(부유세),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방안 등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파격적인 공약을 앞다퉀 마련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복지야 이미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등 서민과 약자 보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2007년 대선 콘셉트가 '경제대통령'이었다면 이번엔 '복

지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복지 문제가 경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분별 복지 확대는 재정위기 나아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제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명지대 신 유 교수는 "사실상 경제공황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념주장을 하면 상당히 힘든 구도가 될 수 있다"면서 "17대 대선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집약되는 '실용주의 버전'이라면 18대 대선은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실용주의 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 박태준 명예회장 영결식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영결식을 마친 고인의 운구행렬이 인장식장인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비대위원 누가될까

비대위 공식 출범 선정 고심...외부인사 발탁 가능성도

한나라당이 19일 박근혜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권한인 비상대책위원 선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위에 당 운영 전권을 주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비대위원장으로선 박 전 대표가 당 전면에서 나서게 되면 당내 인적 쇄신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전 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원 선정이 당 쇄신에 있어 시작을 알리는 것인 만큼 파격적인 인사가 예상된다. 특히 당내 화합을 위해 친박계(친박근혜) 인사는 비대위원으로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쇄신파이자 친이

계(친이명박) 인사인 권영진 의원을 비대위 대변인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취약계층인 수도권 '2040세대'를 겨냥한 외부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당 안팎에서는 김종민 전 청와대 경제수석, 독설가로 유명한 함승희 전 의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대위원 선정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8일 "비대위원장은 19일 선출될 예정이지만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날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국위원은 760명으로 '박근혜 비대위'를 위해서는 과반수인 3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일 몰발병수로 불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박근혜 비대위 출범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총선 경선, 선거인단 투표·여론조사 병행"

■ 민주통합당 최인기 최고위원 인터뷰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이 18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에 선임돼 임시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통합수입기구 위원장을 맡아 시민통합당과의 통합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광주일보는 17일 최 의원을 만나 민주당의 정책성과 지도부 경선, 총선 경선 틀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합수입기구 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도권 밖의 정치 세력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많았다. 상식과 순리를 기반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도부 경선 틀, 중앙위원회 구성 등 일부 쟁점은 민주당이 크게 양보했다.

-기존의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체성 변화는.

▲진보 성향이 강화됐다고는 하나 크게 보면 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기존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토대로 보편적 복지와 시민 주권이 강조됐으며 노동, 청년, 여성의 권리와 가처에 방점이 찍

혔다.

-개방형 정당으로 변신했다. 당원 주권이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

▲시대적 흐름이자 요구인 시민 참여를 역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역 당원과 정책 당원, 권리당원(당비 납부) 등을 통해 당원이 당의 주요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구조는 확고하게 유지된다.

-통합 정당 지도부 경선은 어떻게 치러지나.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가 병행된다. 인터넷 투표 도입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으나 노년층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고 대리투표 가능성 등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끝까지 막았다.

-내년 총선 경선 틀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진다. 당원 참여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추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이라는 점에서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가 병행될 가능성도 크다. 시민 배



심원제는 최고위원 합의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도입되는 지역

구가 최소화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는. 호남 6석 양보설도 있는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같은 '무공천' 방식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권 연대가 실현돼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됐다.

-청년 비례대표를 4명이나 당선권에 배정하기로 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도부 경선과 함께 최대 흥행 카드다.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지도부 경선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각 권역별 대표를 뽑아 최종전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여야 임시국회 협상 난항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밤 12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놓고 심야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양측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나 결렬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결과에 대해 "초보에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듯 이 물밑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기다려야 할

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 견해차가 커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1차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절제·품위 있는 논평 '빛났다'

'민주당의 입' 이용섭 의원 대변인직 사퇴

207일 동안 '민주당의 입'으로 활약한 이용섭 대변인이 지난 16일 통합정당 출범과 함께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관료 출신으로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역임한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균형 잡히고 절제된 비평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 대변인은 이날 마지막 논평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통합정당에

새로운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대변인을 맡았던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고,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5월24일 첫번째 브리핑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비평을 위한 비판보다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거친 말이나 어휘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정부의 독주를 품격 있게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털어



났다. 이 대변인은 "여야 영수회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야권통합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내년 정권교체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가 임대

(구)그랜드 호텔

구시청 사거리 먹자타운 황금동 의류타운

시내중심상가
(모든업종가능)

(구)그랜드 호텔부지! 철거완료!
토지면적 **2247m²** (680평)
지하 **1256m²** (380평)

문의 062)228-3332
H,P 010-4794-8092

(주)미투종합건설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상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 편백 경침 겸용 음성 (아파트용) **75,000원**
-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 (아파트용) **55,000원**
- ▶ 경침 겸용 운동봉 (주박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동행: 601154-52-335334 서명섭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